

농촌의 맛 '간편조리세트' 로

최근 간편하고 손쉽게 한 끼를 즐기려는 식생활 변화에 힘입어 가정 간편식 수요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간편조리세트(밀키트)가 출시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롯데마트(대표 강상현)와 공동 개발한 향토 음식 간편조리세트 출시에 앞서 양 기관은 30일 롯데마트 서울 본사에서 품평회를 열고, 제품 평가와 판매 촉진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앞서 농촌진흥청과 롯데마트는 올해 초 전국 농가맛집을 대상으로 간편조리세트 상품 개발을 위한 향토 음식을 공모하고, 조리기법과 상품화 가능성을 평가해 최종 8점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전북 장수 '장수밥상'의 '된장사래기전골', 경기 포천 '청산명가'의 '들깨버섯전골', 경북 경주 '고두반'의 '옛두부맑은전골' 3종이 우선 출시됐다. '된장사래기전골'은 된장으로 양념한 사래기의 풍미와 구수함이 특징이다. 진하게 끓여낸 사골육수로 국물의 깊은 맛과 감칠맛을 더했다. '들깨버섯전골'은 모



장수밥상 '된장사래기전골'



청산명가 '들깨버섯전골'



고두반 '옛두부맑은전골'

농진청-롯데마트 '농가맛집' 대표 상품 개발 장수밥상 '된장사래기전골' 등 3품목 우선 출시

듬 버섯과 곁들이 채소, 소고기가 어우러져 푸짐하고, 들깨가루를 더해 고소하고 담백한 국물 맛이 일품이다. '옛두부맑은전골'은 전통 방식으로 만든 손두부와 향긋한 미나리, 각종 채소가 어우러져 자극적이지 않은 맛이 조화를 이룬다. 농촌진흥청은 상품 구성품에 해당 농가맛집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조리 순서가 적힌 안내문을 넣어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전국 롯데마트 전 매장에서 판

매되고 있다. 나머지 향토 음식 5종도 순차적으로 간편조리세트로 출시할 계획이며, 상품개발에 참여한 농가맛집은 판매액 일부를 수익금으로 받는다. 한편 지난해 10월에는 충남 부여의 농가맛집 '나경버섯농가'의 '표고간장채소 소고기버섯전골'이 출시돼 소비자들의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농촌진흥청과 롯데마트는 앞으로 △향토 음식 상품화 개발 확대 △관

련 상품개발 희망자에 대한 기술지원 협력 △개발된 상품의 공동 홍보를 강화해 농가 소득 증대를 꾀하고, 사업 성과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앞으로도 민간기업과 협력해 농업·농촌 자원의 상품화 방안을 모색하고, 농가 소득증대와 농촌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상현 롯데마트 대표는 "롯데마트가 그간 쌓아온 역량을 농업인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농가맛집 고유의 맛과 전통을 담은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5월 전북수출 7억4536만 달러

전년보다 20% 증가... 농기계 북미지역 수출 강세 두드러져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준우)가 29일 발표한 '2022년 5월 전라북도 무역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5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0.0%가 증가한 7억 4,536만 달러 수입은 18.0%가 증가한 5억 4,614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무역수지는 1억 9,922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5대 수출 품목으로는 정밀화학원료(\$6,479만, 13.5%), 동제품(\$6,215만, 9.9%), 농약및의약품(\$5,945만, 44.4%), 합성수지(\$5,246만, 4.3%), 농기계(\$5,221만, 61.9%)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특징으로는 농기계 제품의 북미지역 수출 강세가 눈에 띄었다.

5월 미국 지역으로 농기계 수출은 4,344만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단일 품목의 단일 국가 수출로는 전라북도 최대 규모로서 지난해에 비해서는 48.3%가 증가했으며, 2년 전 동월 대비로는 340%가 증가한 수치다.

농기계 중 특히 중소형 트랙터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노동력 문제와 더불어 우리나라 제품의 높아진 인지도와 품질 등이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향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1억 5,362만, 32.5%)은 농기계(\$4,344만, 48.3%), 알루미늄(\$1,610만, 48.8%), 건설광산기계(\$1,085만, 31.4%) 등 주력 품목이 모두 상승하며 최대 수출 시장으로 기록됐다. 중국(\$1억 3,047만, -2.2%)은 동제품(\$2,271만, 37.9%)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나, 정밀화학원료(\$1,487만, -37.8%)와 같은 기존 주력 품목 수출이 다소 부진하여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우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장은 "전북지역은 주력품목들의 수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 어려운 시기에 도 꾸준히 수출 증가세를 보이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중국의 최근 경제지표들이 점차 회복중인 것으로 나와 향후 중국 수출도 증가세를 보인다면 수출 증가율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원자재값 인상 등으로 수입 단가도 증가하고 있어 무역수지는 당분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예상했다. /김윤상 기자

"개도국 토지개혁 지원 위한 지역자산 활용 모델 제시해야"

LX ESG위원회에서 제언... "지역 인프라 구축 필요"

메타버스 활용 내부청렴도 · 친환경 활동 연결 제안도

ESG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의 토지개혁 지원을 특화시키는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나왔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가 ESG경영 체계 강화를 위해 지난 28일 본사에서 2022년 제1회 LX ESG위원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위원들을 위촉하면서 토론에서 다양한 전문가 제언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김경아 전북대 교수는 "LX공사가 국토정보라는 전문성을 살려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협업체 개도국 토지개혁을 위한 특화 모델을 제시한다면 경쟁력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한 "최근 일본이 각종 재난재해 사고로 인문재 도태되고 있다"면서 "LX공사가 디지털트윈·드론 등을 활용해 재난재해 특화된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탄소중립에 기

여하는 서비스 모델 발굴과 인프라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권기대 사회혁신연구소장은 "건물의 에너지 등급정보가 구축·공유된다면 임대차 시세도 달라질 수 있다.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LX공사의 공간정보기술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 소장은 이어 "탄소중립을 위한 인프라 조성도 함께 해달라"면서 "전국 지역별과 지자체 수·전기 충전소를 구축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친환경 실천방안을 강구하고 내부청렴도를 높이는 등 ESG 경영 공감대 형성을 위해 MZ세대가 선호하는 메타버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창환 전북대 교수는 "메타버스에서 재생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다면 혁신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직원들이 RE100(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기는 글로벌 캠페인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김경아 전북대 교수는 "MZ세대는 회사가 운영체제와 비싸게 계약했다는 사실보다는 내가 먹지 않은 영수증의 쌓여가는 데 분노를 느끼는 세대"라면서 "기성세대와 윤리기준이 확연히 다른 만큼 즐겁게 공감대를 쌓을 수 있도록 메타버스를 활용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윤상 기자

"고객 중심 의료서비스 확대"

김민수 신임 건협 전북지부 본부장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이하 건협 전북지부)는 오는 7월 1일자로 제25대 본부장에 김민수 본부장(사진)이 취임한다고 29일 밝혔다.

김민수 본부장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진단과 전문화된 시스템을 통해 검진의 신뢰성을 높이고, 고객이 편안하고 인력한 분위기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더불어 의료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ESG 경영 실천 기관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민수 본부장은 1991년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입사해 사업관

리본부 사업관리부장, 대전·충남 지부 및 경기지부 본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2008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2018년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은행, 무주 안성예

JB희망의 공부방 오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지난 28일 무주군 안성면에 위치한 만나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13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04년 조립식으로 지어진 만나지역아동센터는 현재 32명의 아동들에게 방과 후 학습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운영되고 있으나, 노후화된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은 도배와 블라인드를 새롭게 설치하고 책탁, 책장, 수납장, 신발장 등을 지원해 쾌적한 분위기에서 아동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전북은행 무주지점에서는 방과 후 아동들을 보호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은 지역 특성상 센터가 지역 사회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오픈식에는 무주군 황인홍 군수, 전북은행 김경진 부행장 이경호 무주지점장, 만나지역아동센터 김경임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와 판로개척을 위한 '중소기업·사회적경제제품 공공구매 전시상담회'를 2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내 제품 우선구매 판로 확대

경진원, 중기·사회적경제제품 공공구매 전시상담회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 원장 이현웅)은 도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와 판로개척을 위한 '중소기업·사회적경제제품 공공구매 전시상담회'를 2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및 전라북도 출자·출연 등 22개 기관

들과 도내 50여 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제품전시 및 구매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금년에는 새롭게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전북지방병무청 등 국가기관 참여 확대를 신규 공공부문 시장의 폭을 넓혔다.

이번 행사는 기관 별 수요품목 사전

조사를 통한 맞춤형 1:1 상담 진행으로 효율성을 높였으며, 참여기업의 영상제작·상영, 카탈로그 배포 등을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또한 경진원은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소규모 상담회를 진행해 도내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현웅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협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판로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 사인머스켓 수출농가 조직화 교육

전북도와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전북 농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해 장계농협(곽점용 조합장) 대강당에서 사인머스켓 수출농가 조직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권태영 박사(한스인테크 고문)가 '사인머스켓 종합관리'라는 주제로 진행한 이날 교육에는 장수, 무주, 남원 관내 공선화원 50여 명이 참석해 고품질 사인머스켓 재배를 위한 교육 열기가 가득했다.

현재 도내 사인머스켓 공선화는 189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50ha에서 약 482톤이 생산될 예정이다.

곽점용 조합장은 "사인머스켓이 농가 신소득작물로 자리 잡게끔 전북농협과 협업체 등 긴밀한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며 "장계 지역에 맞는 재배



기술 교육과 판매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수출시장에서 전북만의 고품질 사인머스켓 생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 할 것"이라며 "다른 수출전략품목에 대해서도 수출조직화를 위해 농가교육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aT, 농산물 디지털 유통 발전방안 워크숍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는 신정부 국정과제 등 농산물 유통사업에 대한 발전과 정책 실행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7일, 28일 양일간 2022년 농산물 디지털 유통 발전방안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신정부의 농업 디지털 혁신 국정과제와 연계한 ▲온라인거래소 개설 및 운영방안 ▲스마트 APC 등 농산물 전반의 디지털전환 ▲화훼공판장 시설현대화 ▲ESG 경영 실천방안 등 창의적이고 기대효과가 높은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



이 진행했다. 김형목 유통이사는 "고객중심의 능동적인 유통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여나간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